# "시장·지사가 눈치 보는 연구원 만들어 달라"

##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주문 쏟아져
## "싱크탱크 역할·지역 현안 대안 제시 못해" 분리론 주장도

"광주시·전남도 눈치 좀 보지 말라." "시장·지사가 눈치 보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만들어달라."

18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 5년을 맞이한 연구원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광주시·전남도의 눈치를 보느라 민감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 싱크탱크 역할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날선 비판이 청문위원들로부터 쏟아졌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시·도 연구원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통합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매년 시·도로부터 30억원씩 지원받아 연구원이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김익주 광주시의원은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가 시·도 갈등을 해결하거나 핵심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나?"고 반문했다.

시·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후보자인 박재영(64) 광주대 부총장이 원론적 답변에 그치자, 김 의원은 "이런 답변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 분리는 힘들다. 조직 개편을 통해 1팀은 광주, 2팀은 전남, 3팀은 상생 연구과제를 맡기는 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문옥 전남도의원도 연구원의 시·도 눈치 보기를 질타하며 분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민감 현안에서) 물리적 중립보다 연구원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청문위원 10명이 거수하면 분리하자는 입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집·장제성 광주시의원 등 거의 모든 위원들은 지역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소신 연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박 후보자가 "시·도지사와 담판 짓는 것은 힘들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할 것이며, 외풍을 막고 지역에 필요한 연구와 방향제시를 하겠다"며 답하자, 김용집 의원은 "시장·지사 눈치보지 말고, 시장·지사가 연구원 눈치를 보게 만들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연구원의 연구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상벌제도 도입 등 성과제 도입을 요구했고, 박 후보자는 "취임한다면 3개월 이내 연구원 발전계획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제4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단독 응모했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 옛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8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 4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재영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안정 선제적 대응해야"

## 김영록 전남지사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세워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파 가격 폭락 등 수요·공급 불균형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농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대통령 전남 방문시 마늘과 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와 관련, 대통령부터 전남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며 "전남이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지혜를 모아 전국적인 현장실정에 맞는 가격안정 대책을 세워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남도장터가 눈에 띄게 발전해 실적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농업인들에게 이를 잘 알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등 공동으로 협력해 올 목표치인 150억원 달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29·30번 확진자 발생 관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코로나 19 등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에 맞춰 도청 관련 실국별로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세금납부를 비롯해 징수체납 연장 등 이제는 계획보다 분야별 실적을 내 타 시도보다 앞서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부예산 단계부터 실국장부터 앞장서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해 국회예산 과정에서 용역비와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과 국립심혈관센터 등 이런 사업들도 본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전국 최초 신장장애인 수술비 지원

## 올부터 지원 대상·범위 확대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신장장애인의 이식수술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18일 "지난해 12월 전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혈액·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혈액·복막투석비를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거주한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본인부담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장장애인 이식검사·이식수술비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투석·혈관수술비 지원은 전남 도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광주 소재 의료기관까지 인정된다.

안병옥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장장애인이 힘든 투석 중에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도가니' 무대 인화학교 폐쇄 이후 갈 곳 잃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 수련·재활시설·인권기념관 조성
## 65억원 투입 2024년 11월 완공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쇄된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건립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2011년 인화학교가 폐쇄되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교육·재활을 담당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토지 매입과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65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에 인권기념관, 수련 시설, 재활 시설, 화훼 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건립 부지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또 폐쇄된 인화학교 부지에는 장애인 치료, 교육, 수련, 휴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 부지에 조성하는 장애인 수련 시설과는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위원 공모

## 도시계획·토목·건축 등 249명

광주시가 제16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15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월30일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조경, 교통, 철도, 환경, 폐기물, 토목시공, 품질안전, 토목구조, 도로,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터널,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공공디자인, 기계설비, 전기전력, 신호통신, 에너지 등 21개다.

모집인원은 광주·전남권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전문 기술인 등 249명이다. 신청 자격은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 또는 연구원, 해당 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 설계경제성 검토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 기술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 안전, 공사 시행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임기는 위촉일인 2020년 5월1일부터 2년 간이다.

광주시는 관련기관과 단체,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속 기술인을 고루 선정하되, 여성은 우대할 계획이다.

응모 접수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eokwo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본격화

## 순천시·산악자전거연맹 협약
## 10월 용계산 일원서 개최 예정

전남도가 순천시,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손잡고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18일 순천시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산림레포츠 산업의 국제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순천시,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허석 순천시장, 김영갑 한국산악자전거연맹회장 등 23명이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개최를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회 예산 확보와 행사지원, 경기장 조성과 사후관리, 주차장 조성, 대회 유치·개최를 위한 아시아사이클연맹과 협의, 대회 주관과 행사운영 관리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전남이 산악자전거 세계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은 10월 순천 용계산 일원에서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경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